

[바둑]

국내 최대기전 '한국바둑리그' 25일 개막

국내 최대기전인 한국바둑리그가 오는 25일 막을 올린다. 올해 바둑리그는 주당 5경기로 경기수를 늘리고, 무승부를 없애기 위해 5판3승제를 도입하는 등 어느 때보다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올해 한국바둑리그 선수선발: 경기방식, 출전팀을 소개한다.

▲선수선발=올해 한국리그 출전선수는 모두 48명이다. 맹강 시드자 28명과 예선통과자 12명, 와일드카드 8명이 선수로 출전한다. 선수선발은 오는 12일 실시된다.

팀별 6명씩 드래프트 방식으로 선수를 지명한다. 지난해와 달리 '연속선발' 제도가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각 팀당 1명에 한해 지난해 팀에서 뛰었던 선수를 다시 지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또 연속선발 대상 선수가 시드 배정자이거나 예선 통과자 이외의 선수일 경우에는 해당 팀의 와일드카드 지명권은 자동 소멸된다.

감독은 선수를 결합할 수 없으며 각팀 감독은 입단 20년 이상이 된 프로기사가 맡는다. 각팀의 연고지는 변함없다. 다만 기준 팀에게 연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 경합을 할 시 한국리그 참여 경력을 최우선으로 한다.

▲리그 방식=올해는 무승부가 사라진다. 한팀이 3판을 내리며 3-0이 되는 경우 후속 경기가 자동 취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2-2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경기에 박진감을 더하는 한편, 팀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주중 4경기가 열린 것과 달리 올해는 5경기가 펼쳐진다. 경기방식이 5판 3선승제로 바뀌면서 수~일요일까지 당



한국 바둑리그가 오는 25일 개막한다. 올해 경기는 무승부가 없어지고, 주당 경기수가 늘어나는 등 한층 흥미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한국바둑리그 경기.

12일 선수 선발...팀 연고지 작년과 같아

'5판 3선승제' 도입 매 경기 박진감 살려 유일한 자자체팀 '울산 디아체' 첫 참가

새동안 열린다.

팀간 순위는 팀 전적을 최우선으로 정하며, 종합승수, 승자 승, 동일 팀간 승수, 고령팀 순으로 결정된다. 결정된 상위 4개 팀은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방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포스

트시즌 경기를 진행, 최종 승자를 가린다.

▲출전팀=GS KIXX, 월드메르디앙, 제일화재, 신성건설, 영남일보, 대방 노블랜드, 울산 디아체, 한계임 등 8개 팀이다. 올해 새내기 팀은 대방 노블랜드와 울산 디아체, 울산 디아체는 유일한 자자체 팀으로 리그에 참가한다.

KB국민은행 2007 한국바둑리그는 한국기원, 바둑TV에서 주최, KB국민은행에서 후원한다.

우승팀 상금은 2억5천만원(준우승 1억5천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 30초 초읽기 3회,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쇳물보다 뜨거운 광양 '熱局' 초대합니다

〈얼굴〉

광양제철 창립기념 기성전 도전 2국 주최

박영훈·최철한 격돌...동호인 친목행사도



를 편성, 연승전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참가 희망자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현장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바둑 꿈나무들이 기량을 겨루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

이어 오후 1시부터는 유병호 9단, 오규철 9단, 최규병 9단, 유창혁 9단, 김세실 2단 등 전문기사 5명이 참가, '지도 다면기'를 갖는다. /광양=김승호기자 chkim@kwangju.co.kr

'반상의 고수' 동양 고전 속으로

문용직 5단 '주역의 발견' 폐내



바둑과 학문 사이를 오가며 지적인 여행을 계속해 온 프로기사이자 정치학 박사인 문용직 5단이 이번엔 동양 고전 속으로 제3의 모험에 나섰다.

지난 1998년 출간한 '바둑의 발견'을 통해 바둑에 대한 최초의 정통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문용직 5단이 최근 '주역의 발견'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의 학문적 성과

와 체계적인 논리를 수단으로 그동안 신비주의와 권위주의로 덮쳤던 이온 주역을 해체해 간명한 텍스트로 재정립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문씨가 쓴 '주역의 발견'을 관통하는 핵심이기는 '갖고 논다'이다. 주역은 인간이 만든 것인데 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짐작동기였다.

"주역은 난잡하고 신비로운 형상을 공부해도 몰라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에 얹여서 본질을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는 주역을 '갖고 놀기' 위해 현대 고고학과 기호학, 인지언어학 및 형식 논리학의 성과를 빌어왔다 한다.

/연합뉴스

부광공인중개사

☎ (054-4520 161-629-1718)
(백운동 국제호텔 맞은편)

대인부동산컨설팅

☎ 011-625-0510
(상촌동 한국법원 옆)

금보부동산컨설팅

☎ (02) 681-8949 휴 011-602-2233
(북구 우산동 문화초등학교 정문앞)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973-9174, 016-757-8800

싼땅마매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계약 120평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담보부자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담보부자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계약 100평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계약 80평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계약 60평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계약 40평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계약 20평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계약 10평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계약 5평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계약 3평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계약 2평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계약 1평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계약 0.5평원

•부산동 풍정동 주택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계약 0.3평원

고시원매매

•부산동 풍정동 전자화물통 신축 건물고시원 대

•부산동 풍정동 전자화물통 신축 건물고시